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주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 8 7 () 총 2	
담당 부서 : 위생정책과	담당자 :	생관리팀장 문인영 ☎ 40-2781 당자 조소정 ☎ 40-278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820여 곳 여름철 특별 위생점검

- 8월 25일까지, 동네마트, 편의점 등 위생 상태 점검 -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진열·판매 홍보 활동도 병행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집주변 마트,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820여 곳을 대상으로 8월 25일까지 특별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 300㎡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영업신고 관리 대상이지만, 300㎡ 미만의 소규모 동네 마트 등은 자유업으로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게다가 외식 물가 및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마트 간편식, 편의점 등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생 상태가 미흡한 판매업소는 현장 계도와 현지 시정조치를 실시해 식품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규모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동네마트, 편의점 등 300㎡ 미만 820여 곳을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8월 25까지 3주간 진행되며, 인천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 준수 여부 ▲무허가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최소 판매 단위 식품완제품 날개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보관·진열·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용 위생용품도 지원하며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집근 처 동네마트, 편의점은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세심한 위생관리와 점검·계도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구매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홍보용 위생용품 및 점검사진

<홍보용>



소규모 식품판매업소(300m² 미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 위생관리

- ☑ 식품은 위생적으로 보관·진열·판매하겠습니다.
- ☑ 냉동·냉장식품은 진열·판매 시 보관온도를 준수하고 청결히 관리하겠습니다.
- ☑ 표시가 없는 식품,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 ☑ 최소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 완제품은 개봉하여 날개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점검사진>

